

九層庵石塔復原圖

空間에 在來式 方法을 따르는 基礎를 하였다. 磨砂와 剛灰 雜石 粘土를 練土하여 메르다 지고 地台石을 水平맞춰 安置하였다.

下層基壇의 壁石은 從來 埋沒되었던 것중에서 성한것을 正面(南面西)으로 보내고 나머지 是는 東南과 北西北東에 놓았는데 北東에는

解體時 發見된 破片으로 맞추고 北西側의 半破片은 手물에서 꺼낸 나머지 半破片과 합쳐 하나를 만들어 놓았다. 그 위의 甲石은 原來 二枚의 小片으로 깨어졌고 西面의 또 한 돌은 南側面部가 三破 北面部에 數多한 裂傷을 입었다. 心礎石에 의지하여 겨우 맞추어 놓고 보니 東北隅과 西北隅가 깨어져나가 모양은 없게 되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일이 쉽게 된 편이었다. 上層基壇의 面石을 맞추는데는 이틀을 소비하여야만 되었다. 九層庵부분에 露出되어 있는 壁板石이 六枚 있었다. 우물물로 쓰여진 三枚를 빼어 놓고 보니 九枚의 壁石中에서 二枚를 使用하여야 좋은 지의문이다. 먼저 隅柱의 幅이 같은 것을 찾아내었다. 隅柱幅은 一定치 않으나 대략 四·五寸乃至 四·七寸程度의 것과 五寸乃至 五·二寸의 두가지로 나눌수 있었다. 이 두가지의 돌들을 높이와 폭이 같은 것들로 다시 分類하여 보았다. 이상하게도 九枚의 돌들이 二枚씩만 같을뿐 나머지 각각이다. 그러니 八枚는 높이는 서로 다르나 四組로 區分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높이가 맞은것중 어떤것은 폭이 다르고 혹은 隅柱의 規格이 틀린다. 이튿날부터는 우선 第一後補石부터 작보기로 하였다. 앞과 左右는 그럴듯한데 뒤쪽돌을 잘아보니 영

틀린다. 모두 나리고 第二後補石들을 짜본다. 결과는 역시 뒤쪽에서 또 틀린다. 짝이 맞지 않아 따로두었던 길이가 긴 나머지 한 돌을 갖다 맞추니 어쩔일인지 꼭 맞는다. 그제야 깨닫고 보니 甲石의 壁石 받침部가 前面은 짧고 後面은 길다. 上層甲石을 놓고 初層塔身을 安置하니 그 이상은 순조로웠다. 三層은 塔身없이 蓋石만을 올려놓았다. 그 위에 露盤을 놓아 塔의 再建을 끝맺추었다(圖面參照)

塔은 九層庵法堂前庭에 南面西向하여 놓였고 初層塔身의 前面에는 如來坐像이 浮彫되었다. 舍利孔은 初層塔身上面 中央에 方形으로 鑿었다(深〇〇·三三尺) 初層塔身은 後面이 뒷돌 몫시 상하였다(寫眞은 復元된 石塔第一塔身佛像인)

資料

(華嚴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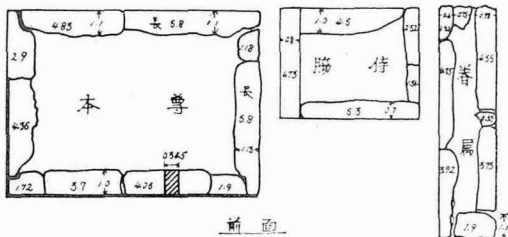
一九六一年 九月 調查

覺皇殿佛像臺石

石經을 佛壇下에 橫置하기 위하여 整理하던중 丈六殿 當時의 佛壇臺石이었으리라고 推定되는 一部份의 遺址를 찾아내었다. 位置는 佛壇下 中心部로부터 左右로 퍼진 구역이다.

遺構는 方形을 區劃하고 장대를 짜은 本尊臺座地를 中心으로 左右에 그 보다 작은 方形의 臺座자리가 있고 그 밖으로 東西行하는 長方形의 石壇址가 있다. 長方形의 壇址는 中央方形本尊자리와 이 외 대략 같고 脇侍菩薩像의 臺座자리로 보여지는 方形의 길이는 前者의 約半에 해당한다(圖面參照)

장대를 짜은 수법은 평범하나 精緻한 솜씨를 잘 보이고 있다. 장대는 화강암을 썼다. 장대석은 크기가 일정치 않다. 좌우길은 바깥면으로만 하였고 위쪽과



註: 本尊을 向하여 左側의 脇侍를 佛壇址에 有號한 佛壇臺石

丈六殿丈六像佛壇址平面圖

鄭申
明榮
鎬勳

뒷쪽은 거친대로 두었다. 前面上段에 한 綫을 만들어 뒷쪽의 무늬와 연결됨을 表示하였다.

장대는 지금 대부분 땅에 묻혀 위쪽 조금만이 남실남실 보인다. 한 부분을 試掘하니 약 八寸가량이 쪼그러는데 그 아래로 또 한개의 돌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記錄에 依하면 丈六三尊像(註一)이 여기에 安置되었다고 하니 前座한 세 대와 자리에는 三尊像이 앉고 横座한 左右에는 그 眷屬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여기에 安置되었던 佛像是 鐵佛이나 石造 혹은 木造佛은 아니었던듯 하고 대략 塑造佛이나 乾漆佛로 짐작이 간다(註二).

註一、「華嚴寺跡」參照(考美資料第七輯「佛國寺·華嚴寺事蹟」)

註二、佛壇址 整理時 土製螺髮片 五點을 採集하였다. 크기와 螺髮線狀

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其一 底徑 〇·一六尺 高 〇·〇九尺 左始右旋六條
- 其二 " 〇·一五尺 " 〇·〇九尺 " 五條
- 其三 " 〇·一四尺 " 〇·〇九尺 " 八條
- 其四 " 〇·一五尺 " 〇·〇九尺 同心圓九條
- 其五 " 〇·一三尺 " 〇·〇七尺 右始左旋六條

其一——其四是 粘土를 水箆하여 만들어 乾燥한 것이고 其五是 갈이 단물었으나 素燒程度의 불을 먹은 것임.

石 甕

山門안 東側 넓다란 마당 가운데 돌독이 하나 묻혀있다. 口緣部가 조금 상했을 뿐 깨끗하게 남아 있는 이 돌독은 法住寺의 그것과 함께 注目할만한 것이다. 바닥에 네모진 花崗石으로 깔고 역시 네모난 돌들을 이 맞추어 짜아서 독과 같은 모양을 만들고 別造의 口緣部를 設置한 것인데 그것은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건이 만들어져 있다. 한 개에 보통 열명여리의 돌을 써서 여섯개를 쌓고 두개의 口緣部를 올려 놓았는데 아래 위 좁아지는 下腹과 上腹에는 작은 돌을 쓰고 中腹에는 커다란 돌을 썼다. 돌의 카임은 精緻하여 이음새에 별로 간격이 없음을 發見할 수 있다. 形象은 圖面에서 짐작해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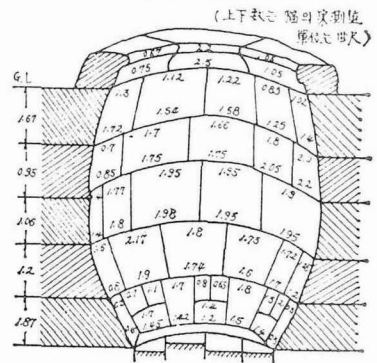
結構年代에 對한 記錄은 別달리 얻지 못하였다. 꺾음법이나 작은 솜씨로 봐서

高麗中期나 후 前期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覺皇殿壁畫片

覺皇殿三尊像右脇侍佛前面에 箱子에 넣은 壁畫破片이 있다. 箱子는 一九四三年度 修理 工事時 製作되어진 것인듯 하다. 箱子(外長四·一五三尺) 안에 높이가 약 一·一二尺 되고 두께가 〇·四三尺 되는 壁畫의 한破片이 들어 있다.

石甕斷面圖



柱間 어느 空間壁에 그려졌던 壁畫이었던 듯한 印象을 주는데 上下에 墨긋기 한 線條가 있고 그 거품에 奏樂飛天을 그렸다. 지금은 좌우가 없어지고 몸체의 일부만을 남기고 있다.

仙女는 으쓱 어깨를 추기며 이제 막 박자를 맞추어 목에 끈을 매어 가슴에 느린 장고를 두드린다. 대담하게 正面을 向하여 몸을 뒤돌며 자세를 고쳐잡는 몸매에서는 女人의 豐滿感이 풍긴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통통한 무 三道를 가진 목에 이어 아스머질 듯한 어깨가 보일듯 말듯한 엷은 天衣에 쌓여 있다. 天衣는 붉은색 빛옷에 흰 깃을 달았고 치마는 靛綠에 蜜陀僧을 配合한 듯한 色調의 것을 입었다.

바람에 필력이 는 치마가 右間에 展開되었으나 깨어져 나가 갈 알 수 없다. 흰 쪽 間地에 꽃이 보이는 듯 하나 대부분이 깨어져 있어서 무슨 꽃이었던지 알 수 없다. 이는 碧巖禪師重建功德에 그려졌던 것을 一九四三年 修理時 내러놓은 것 인듯 하다.

圓通殿壁畫奏樂飛天像

一、西側前面裏壁柱間土壁의 飛天像

飛天이 左右로 首尾를 이고 東向하여 나르며 奏樂을 아뢰고 있다. 창방아래 土壁에 綠黃色 바탕을 칠하고 굵은 墨線과 가는 胡粉으로 굵기를 짜고 그 거품에 飛天을 그려 넣었다.

나뭇한 들매를 뒤트는 듯하며 풍만한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활조를 나르는 랍

사한 자리에 붉은빛이 조금도는 黃色天衣를 입었다. 십과 짓을 붉게 칠하고 등과 衣端에도 같은색 물을 들었는데 머리에만은 흰피로 結飾하였다. 겹은 머리에 흰빛 끈을 매어 공간을 두게하고 그 위로 검은색 寶冠을 쓴 것은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앞을 나르는 仙女는 붉은 天衣를 입었다. 두손을 부드럽게 앞으로 모아 피리를 들고 멀고 넓은 하늘에 고운 音韻을 휘날리고 있다. 앞선녀의 腹部以上과 뒤따르는 선녀의 피리끝은 剝落되었다.

二、前面裏壁中央間土壁의 飛天像

춤을 추는 듯한 몸짓을 하며 하늘을 나르고 있는 姿態 灰青色 天衣를 입었다. 顏頰、胸部 등에 심한 損傷을 입어 아리마운 모습을 전부 볼 수 없다.

三、中央間東쪽 天壁의 壁畫

수염이 길다란 山神이 道袍처럼 생긴 의복을 입고 童子와 나란히 섰다. 山神은 右手에 持物을 갖고 左手를 外掌하였다. 童子는 팔뚝을 허리에 대고 팔을 벌린 形象 壁畫의 바탕은 黃褐色이고 의상도 같은 계통의 색채인데 墨線으로 描形하고 있다. 몸매만은 白色을 칠하였다. 背景은 무엇일까 자세히 않다.

四、中央間西쪽의 天壁 壁畫

上端에 巨樹가 보이는 밖에 剝地되어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다.

五、東側前面裏壁柱間土壁의 飛天像

中央間을 向하여 西面하고 나르는 이 飛天은 붉은색의 上下天衣를 입었다. 몸을 기우뚱 앞으로 돌려 무릎 위에 놓은 거문고를 들고 있다. 天衣의 안감은 灰青色, 역시 두 仙女가 나르고 있으나 앞의 仙女는 아주 날라가고 天衣端 조금만 남겨두었다. 전체의 感覺은 西側의 그것과 흡사하다.

六、東側間左右天壁 壁畫

각기 다른 모습을 한 羅漢이 雲間에 完坐하였다. 東의 羅漢은 合掌, 西는 팔을 벌리고 있다. 그림의 바탕은 亦是 黃色系統이다.

圓通殿에는 이보다 많은 종류의 壁畫가 周壁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 없어지고 上記한 것만이 남았다. 壁畫는 建物과 同代的 것으로 알려졌는바 建物은 李朝中期的의 作品이라고 周知되고 있다.

經板目錄

求禮華嚴寺跡(八枚)

第六卷 第九號 通卷六十二號

華嚴寺跡(康熙丙子)(四二枚)

浮休集(四)(二)(六)三(四)四(三十一)五(八)序(萬曆己未七日)重刊後(庚申七月五日)

念佛直指(上)(四)下(五四)目(一)序(一)(雍正二年)

惟提淨歲(卷一)(二)(三)卷二(十六)卷三(三九)序(一)目錄(一)(天啓癸亥)

天罡時課(八)

觀念錄(三五)(崇德二年秋七月)

觀音靈籤(二七)

獨聖請(一)

雲水(三二)

持經訣要(三五)

碧岩禪師碑經并序(二十)

圓王經(三)

歸元上(一)一六序二嘉靖三二年癸丑)

壽生經序(四)序(一)

智異山大華嚴寺金剛戒壇(大形 1.95尺×2尺.26)(二枚)

破妄念佛說(五)

金剛經(二五)(崇禎後拜戊戌)

十王文(十五)(畫板七枚)

住觀說(曹溪懶菴集 康熙六十辛丑)(十二)序(一)

現行經四一品圖(一)

其他(九)半枚板(十七)

碑石及懸板目錄

1、碑石

華嚴寺碧巖大師碑

大華嚴寺九層庵重興化主比丘尼德善碑銘(昭和八年一九三三年)

智異山華嚴寺覺皇殿重修碑(一九四三年)倒壞

2、懸板

華嚴寺重修記(上之六年庚子九年)

御筆閣重修記(憲宗六年一八四〇年)

御筆閣重修記(聖上即位三十一年癸巳)(註)

(註) 聖上은 高宗을 말함이요 即位三十一年은 干支가 甲午이므로 여기의 癸

己七 高宗三十年에 該當된다.

智異山華嚴寺大雄殿重修記(大正四年) 大雄殿揭

華嚴寺護刹文(光武五年) 普濟樓揭

天王及金剛尊像重修改彩記(光緒七年辛巳) 天王門向右壁

智異山華嚴寺四天王兩金剛二童子改彩補缺緣起(釋尊紀元二九四二) 天王門向右壁

獻審記(聖上即位十三年) 冥府殿

湖左求禮縣智異山華嚴寺金井庵七星殿始創記(同治十一年壬申) 金井庵七星閣

金井庵七星閣移建緣起(光武三年乙亥) 金井庵七星閣

海東鳳城縣地智異山華嚴寺鳳泉庵重創記(道光九年己酉) 鳳泉庵揭

智異山華嚴寺九層蓮社長燈功德記 九層庵

幀畫目錄

○大雄殿

其一 神衆幀 咸豐十四年甲寅

其二 緣起祖師影 一幅

其三 浮休堂登階大師 善修 一幅

其四 四溟堂 一幅

其五 御賜報恩閣教圖熙國一都大禪師碧岩堂大宗師眞影 一幅

其六 抱月堂大禪師之照 一幅

其七 應峰堂大和尚正基之影 一幅

其八 大法堂銘 乾隆二十二年 三幅

○覺皇殿

其一 靈山幀、藥師幀、彌陀幀、咸豐十年庚申

○圓通殿

其一 塔殿銘幀畫 建陽二年丁酉

其二 〃 〃

其三 〃 〃

○厨房

其一 竈王幀 建陽元年

○九層庵七星閣幀畫

其一 普現王幀 光緒十六年庚寅

其二 聖上即位二十七年丁未

○鳳泉庵土壁幀畫

其一 同治七年戊辰

○金井庵七星閣

其一 山王幀 同治十一年壬申

其二 七星幀 同治十一年壬申

其三 九層庵銘 光緒七年辛巳

其四 賢王幀 同治二十年

華嚴寺銅鍾目錄

一、大雄殿銅鍾 一口

實測值·鍾高 一一四·五cm 上帶徑 四八·五cm 口緣徑 八〇cm

二、九層庵銅鍾 一口

實測值·鍾高 七六cm 上帶徑 二九cm 口緣徑 四六·五cm 口緣厚 三·五cm

銘 文·雍正六年「七月 日鑄成」求禮華嚴寺內院」庵中鍾 福海「化主居士

蓮突」別座門會」大禪師惠淨」慧能」施主僧智□」僧心悟」僧權

益」金澤華」姜壽奉」朴□才」

三、鍾樓銅鍾 一口

在銘(陽刻)

康熙五十年辛卯四月日雲興大鍾鑄成重七千斤施主 秩嘉善清學 安宇至兩主

金泰山兩主 金世輝兩主 李鐵岩兩主 金善方 化主秩 居士 朴憲 舍當兩主 □

良 比丘 順行 順寬 學松 比丘 雲極 順學 順化 比丘 順環 順門 順奇 比丘

順王 順覺

考古美術 卍

◎文化委第一分(十三次)

八月十八日 午後二時 文化財管理局 會議室에서 開催되었는바 出席 金祥基 李弘植 金允基 黃壽永 金元龍 委員外 國博 尹武炳氏 德壽宮所長 文化財課員